

# 그날의 『시국 담화문』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980년 5월 18일, 서울주보 2면에 특별한 담화문이 실렸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시국 담화문’. 주교단은 당시 시국에 대한 큰 우려와 함께 천주교의 분명한 입장을 5항에 걸쳐서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약한 민주 헌정 확립과 평화적 정권 이양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국 담화문 1항). 만약 이 공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민적 단합이 깨지고 정국의 혼란과 국가 안보의 기틀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 담화문의 깊은 우려는 그날 바로 비극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군부가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살해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신학생들이 거리 시위에 참여할 정도로 당시의 시국은 위기였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남녀 대학생들의 시위 물결이 휩쓸고 있었습니다. 5월 내내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주로 ‘전두환 퇴진’,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개정’을 외쳤습니다. 시위 대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매일 늘어나자 경찰들은 중앙청, 청와대, 시청 등 중요 장소들을 지키면서도 최루탄을 쏘는 등 강경 진압을 계속했습니다. 5월 14일, 대신학생들은 시국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는데, 당시 맨 앞줄에서는 경찰의 무차별 진압으로 피를 흘리는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5월 15일에는 약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서울역 중심으로 모였지만, 대학생 대표들이

군대에 의한 유혈사태를 걱정하여 자진해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유명한 ‘서울역 회군’입니다.

당시의 시국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1980년 5월부터 신군부의 정치 관여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학생 시위가 대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5월 17일 24시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전국의 주요 시내와 대학, 중요기관들에 계엄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18일 주일날에도 시위를 계속했고 계엄군은

초기부터 무자비한 강경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부상자도 수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서울주보 곳곳에도 이런 아픈 역사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시국 담화문’은 서울주보 역사에서도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1978년에 시작되어 당시 만 2년이 된 서울주보는 단순히 전례지, 교회 소식지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해 정의와 인간 존엄에 관한 교회의 메시지를 내는 매체로서의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신군부에 의한 언론의 탄압이 심한 상황에서 교회의 분명한 의지 표명은 서울주보의 여정에 한 단계 발전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시국 담화문

##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

오늘의 우리 시국은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고비에 서 있다. 특히 학원 사태와 노사분규를 비롯한 제반 국내문제와 계속 진박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우리 나라는 조속히 민주 헌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적 단합을 이루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시국은 아직도 개헌의 조정이 불투명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민, 국민 시도를 잘라놓는 불신의 장막은 너무나 두텁다. 이에 북돋움에 따라 모든이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선포함으로써 이 거대한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천주교 주교단은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이 시기에 국민적 단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해 우리는 모두 애국 애족하는 마음과 함께 진실하고 정직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믿음을 회복시켜야 하겠다. 특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강화 회복은 시급하다. 정부가 공약한바 있는 민주헌정 확립과 정권 이양은 반드시(조속한 시일내에) 실현되어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땅에서 정치 불신은 모든 인간 불신으로 이어지고 국민적 단합은 기백할 도리가 없어지며 급기야는 여기서 초래될 정국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국가안보의 기틀마저도 흔들릴 염려가 크다.

2. 국민적 단합을 위해 우리는 모두 회개의 정신과 아울러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참으로 살아야 하겠다. 먼저 우리자신을 포용하여 정치 경제 등 사회 각계의 지도층은 국민 대중앞에 지난날에 있어 국민을 오도하거나 혹은 부정과 불의에 타협함으로써 법한 과오를 깊이 뉘우치는 겸허와 회개의 정신을 가져야 하겠다. 특히 국민적 합의에 의해 유신헌제가 부결된 헌단에서 과거의 정치적 과오에 책임의 일인이 있는 인사들은 오늘의 민주발전 추진과정에서 역사의 순리에 따라 회개의 겸허와 자숙을 보여주기 바란다. 동시에 국민대중은 장차 정의와 아울러 사랑을 앞세워 역사를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겠기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이들을 화해의 정신으로 포용

하는 아량을 지녀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 현 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있지않고 인간 존엄성과 그 기본권을 참으로 존중하고 국민 모두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민주적 정치와 경제 및 문화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맞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을만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에 정치인들은 물론이요 우리는 모두가 금력이나 권력에 대한 일체의 욕심을 버리고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아울러 애국애족하는 정신으로 오직 겨레와 나라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우리는 또한 민주화 작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때에 과거 민주와 투쟁 대열에서 독특한 시련을 겪은 이들중에서 어떤이들이 아직도 완전히 석방, 사면, 복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새 민주헌정의 기초를 이루어야 할 인간존중과국민적 화합을 위해서도 이들의 석방, 사면, 복권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지닌 젊은 질서의식과 애국심을 위정자들은 충심으로 인정하여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하여 되도록 속히 민주정치를 정착시키는 것만이 시국의 불안을 해소하는 절정임을 거듭 재언하는 바이다.

5. 우리나라가 이같이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삼아 새로운 민주 헌정 체제를 확립하므로 이제 그 누구도 가난하고 약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이가 없을 만큼 정의롭고 밝은 사회가 될때에 이 나라는 진정한 국민이 일체감을 느끼고 아끼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의 경제도 더욱 발전하고 국가안보도 참으로 공고히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겨레의 염원인 남북의 평화적 통일 역시 이 정신과 이 힘 위에 이룩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시련인 동시에 희망의 계기인 현 시국에 일체 국민모두가 양심, 정의, 성실을 다하고 정서를 지킴으로 민족의 운명을 영광된 역사의 단계로 이끌어 나가자고 호소하는 바이다.